

서승진강화지부장

## 새롭게 변신한 강화지부

다른 지부보다 일찍 회원 배가운동을 벌여 217%의 회원 증가율을 보인 지부가 있다.

답답한 서울을 떠나 김포가도를 따라 1시간 30분 정도 북서쪽으로 달려가면 화문석과 인삼으로 유명한 섬아닌 섬, 강화에 이르게 된다.

강화에 들어서는 문턱인 강화대교 입구에는 “역사의 고도”, “개국의 성역”이라는 커다란 아아치가 옛 강화의 역사적 위치를 다시금 생각케 하면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강화지부(경기도 강화군 강

화읍 관청리 492-2번지, 전화(0349) 32-0145)는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그동안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시간이 흐를수록 창립때의 의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들어 지부장이 바뀌면서 몇몇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확충에 급선무임을 깨닫고 회원 배가운동을 벌

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 대규모 세미나 개최로 분위기 조성

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선 협회에서 하는 사업과 가입에 따른 이득, 가입절차, 목적등을 홍보할 자리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강화지부는 일단 회의에서 강화군 전 양돈인(소규모포함)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강화지부는 이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행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 강화군청에 협조를 의뢰했다.

이에 강화군청에서도 협회의 자발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각 면사무소를 통해 양돈농가의 빠짐없는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군청 회의실을 세미나 장소로 제공하여 많은 양축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여명의 많은 양돈인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부군수가 직접 참여하여 격려사를 통해 협회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백용 본회 전무는 강의를 통해 양돈인의 현안문제와 협회의 기능, 주요사업, 협회 가입의 당위성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경기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돈인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한 양축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돈경영과 경영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도 열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같은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는 회원 확보에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기존 회원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 기존회원들 희생감수

회원 배가운동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또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회원들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기존의 자금으로 협회 사무실과 집기등을 마련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와 회비 이외에는 일체의 부담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실

**지부 활성화방안으로 대규모 세미나 개최와 기존회원들이 희생을 감수해**

행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부 개방을 위한 혁신을 단행하기 까지에는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적지않는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의 진취적인 사고에 따르기로 중론이 모아졌다.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협회의 느슨한 매너리즘에 회의를 품고 탈퇴하려던 회원들도 다시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협회에 가담하지 않던 양돈 농가들도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부 활성화 작업을 하기전 23명이던 회원이 2~3개월 사이에 50여명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신규 가입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같은 막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승진 지부장은 “양돈인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돈인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지부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며 “지부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 임원별 순번을 정해 지부사무실로 출근 양축가의 상담을 받고 세미나주제를 미리 알려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개혁의 주역인 박광규 총무는 “기존 회원들의 힘이 너무나 컸습니다만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쾌히 동참하기로 한 회원들의 결의는 존경받을만 합니다”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부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좀 더 노력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 술 밥에 배 부를 수는 없지만 혁신을 단행하는 멤버의 면면을 볼때 지부의 발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채로 지부를 창립한다는 기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항상 신선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는 조현환 이사의 마음은 전 회원의 마음과 일치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각종 회의는 질서정연하게

기자가 강화지부를 방문한 날

은 마침 지부월례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지부운영의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6월중순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회의시간도 정확하게 지켰다.

회의 진행은 식순에 따라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앙회에서 마련한 월례회의 자료와 지부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미리 복사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진행이 순조로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었다.

우유로 점심을 때우며 마라톤회의를 강행하였으나 불평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너무나 진지한 까닭에 화장실 다녀오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회의때는 그때까지의 회무에 대한 보고도 유인물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지부운영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월례회의 때는 각종 세미나도 함께 열고 있는데 사양관리분야, 질병(위생)방역분야, 경영관리분야등으로 세분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분야를 시의 적절하게 선택하여 개최한다.

형식적인 세미나는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보장되는 세미나를 열기 위해 주제는 한달 전쯤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미나가 열릴때는 열띤 토론을 거치게 되며 자신의 경영상태를 체크해 보는 좋은 기회로 활용된다.

### 사무실에는 운영위원 상주

강화지부는 지부사무실이 실질적인 정보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

언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러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운영위원들은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사무실을 지키며 양돈관계 상담에 응하고 있다.

바쁜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여타의 지부에서도 강화지부의 활동을 참고로 하

여 회원 배가운동을 벌인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강화지부의 새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 강화지부의 임원진

▷지 부 장 : 서승진

▷부지부장 : 나근정, 김진식

▷총 무 : 박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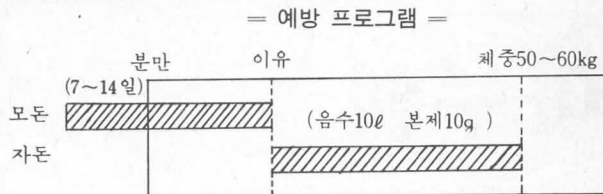
▷이 사 : 조현환, 나병열, 강문희, 김명식, 조덕환, 전순학, 한재화

▷감 사 : 박상돈, 김영만

## 양돈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 메토믹스-수용산


- 위 축 성 비염
- 흉 막 폐염
- 유행 성 폐염
- 기관지 폐염
- 파스튜렐라성 폐염
- 설사
- 장 독혈증
- 무유증 증후군



= 치 료 시 = (음수10ℓ 당)

구 분	체중(kg)	사용량(g)	구 분	체중(kg)	사용량(g)
포유자돈	5~10	20~35	비 육 돈	25~100	20~30
이유자돈	10~25	10~20	종돈·수유돈	120이상	10~20

\*예방 프로그램 적용시 증체율 10.3% 사료효율 3.7% 개선되었습니다.

 (株) 中央เคมี칼 (T590-8361~4)